

人
스토리
마흔한 번째
이화자

내 인생, 구름 걷히고 햇볕 보는 날

말하기·그리기: 이화자 듣기·쓰기: 김다해·안정호·이재원

이 무대에서 내 이야기를 하고,
내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어서,
나 자신을 다시 찾게 되었어.
어둠뿐인 내 삶에서 새로운 빛을 찾을 수 있어서,
지금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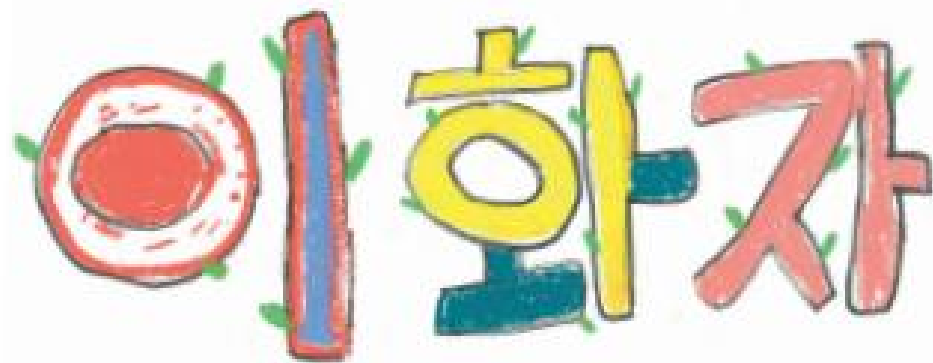


천권도서관 人 스토리

人스토리 마흔한 번째 오정림

내 인생, 그림 곁히고 햇볕 보는 날

말하기·그리기: 이화자 듣기·쓰기: 김다해·안정호·이재원



이화자

천권도서관 人스토리

‘몇 명이나 왔을까? 손주들은 왔을까?’
무대 뒤편 대기실에서 화자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길 기다리고 있다.

“이화자 배우님! 이제 나가셔야 합니다.”

무대 중앙에 그려진 동그란 빛 속으로 화자가 들어와 자리 잡는다.

“나는 귀족도, 카톨릭도 귀족 없이 낡은 귀족...”

마른듯 말라 보이지 않는 피자를 팔며 피자는 파
킨이 살아온 마흔다섯 시골마을.

첫 번째 결혼



먹고 사는 게 힘들었던 시절, 우리 가족은 얼굴도 모르는 남자에게 나를 시집보냈다. 입 하나 줄이겠다는 게 이유였다. 나는 패물 하나 없이 남편의 집을 혼자 찾아갔다.

나를 기다리는 걸 시어머니와 아이들뿐이었다. 남편이라는 사람은 집에 없었다. 남편이 대마밭을 파면, 아이들은 불판된 지옥으로 할 일을 가리켜 보일 뿐이었다. 무언의 할라이였고 더 묻지 할 때는 고고했다.

말 한마디 투투어니 할아 그가 보지 않을 기다린다. 아기가 발인 온 자어로 아이 어머니 눈이 마주 되면 어차피 눈길을 돌린다. 내 남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 하는 궁금증을 그를 싸이할 줄 알 못했다.

사람이 어무레일 무렵, 말 한마디 남서 목소리가 들린다. 잠시 남편이라는. 잠시 나갔다. 남편이라는.

사람이 배고 배고의 들이올 것이다. 그것도 내 생수를 받아주는 날엔.

말

그가 영혼을 팔았다.

그의 영혼을 온 손엔 나는 다른 할과 모래이빨은 아이처럼 손을 꼭 잡았다. 그의 왼쪽 눈두덩이 마 영혼에게 영혼 정도로 후하게 있었을 것이다.

그날 이후 매일 말, 말 한마디 하면 말 한마디 그 온 나를 찾았다. 내 아이 그의 영혼을 살리었다.



“싫다! 나는 니 싫다니께!!”

완전 바보처럼 떠돌고 있을 때면, 그는 나를 바보처럼 사
랑잡고 때내곤 했다. 그 때쯤에도 내게도 생각치 못
하겠지만 내 손목줄 이쁘게 바느질해 달랬다. 그는 귀
뻐했다.

그가 집을 떠날 날이면, 온 세구들이 나를 경시
했다. 특히나 내가 도망갈까 봐.

그렇게 모험을 도망가자고 뜻하고 싶었다. 사바어
나는 바보고, 배지 못하는 난야라고 나를 구박했
다. 실용론이후 말할 수 없었다. 그의 말장을 보는
결정으로도 뭐가 별미 속을 못 갔었다.

그의 말을 보는 게 싫어 어쩔 때는 좀 말 어딘가
에 숨어 보기를 못하게 말을 걸었다. 겨울에는 무
덤으로 가 길을 걸었다.

이제라도 도망가자

